

뼈꾸기와 오리나무



소설가 · 이 청 준

산골짜기 외딴 곳에 오리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근에는 사람도 살지 않고 친하게 사귄 다른 친척 나무도 없었으므로 오리나무는 늘 혼자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나무 똑같은 하늘 똑같은 산등성이만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심심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산등성이 너머엔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을까 궁금해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비가 몹시 내리고 있었는데, 비에 젖은 뼈꾸기 한 마리가 외나무 위를 힘든 날개짓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리나무는 심심하던 참에 그 뼈꾸기를 자기 가지로 불러들였습니다.

“뼈꾸기야 이리 오렴. 내 이 무성한 나뭇잎으로 비를 피하게 해줄게. 그리고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게서 밤을 지내고 가지 않으련?”

“고맙습니다. 뼈꾸! 오리나무님, 뼈꾸.”

뼈꾸기는 물론 고마와하면서 오리나무 가지 사이로 비를 피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성한 잎들을 의지해 밤을 지내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뼈꾸기는 그냥 신세만 질 수는 없었습니다. 오리나무의 고마운 친절에 뼈꾸기는 보답을 해 주고 싶었습니다. 뼈꾸기는 오리나무에

게 물었습니다.

“고마운 오리나무님. 삐꾸!. 나는 오리나무님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 드리면 좋을까요, 삐꾸.”

오리나무는 삐꾸기의 고운 마음씨가 기특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 삐꾸기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삐꾸기야,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겠다니 고맙구나. 사실은 나도 늘 가슴속에 지녀온 소원이 한 가지 있단다. 나는 언제나 여기 한 곳에서 저 산등성이만 바라보고 지내니까 그 산등성이 너머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 가 보고 싶단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 한 곳에 뿌리가 박혀 사는 나무라 거길 절대로 가 볼 수가 없구나.”

오리나무의 목소리엔 어느덧 한숨기가 섞이고 있었습니다.

“넌 세상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무엇이든 구경을 할 수 있으니 그걸 내게 이야기해 주겠니?”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삐꾸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날마다 하늘을 날아다니며 구경한 세상 일들을 밤늦도록 즐겁게 오리나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 산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삐꾸기는 그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마을 사람들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식들이 익어 가는 들판과 농부들의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강물이 모여 생긴 끝없이 넓은 바다의 이야기와 그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여러가지 물고기며 어부들의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삐꾸기가 새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오리나무는 재미있고 신기해서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가지를 흔들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니 삐꾸기는 더욱 신이 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삐꾸기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해가 저물면 혼자 쓸쓸하게 서 있는 오리나무를 다시 찾아가 그 오리나무의 무성한 잎 사이에 포근한 잠자리를 잡고 앉아서 낮에 본 세상 일들을 빠짐없이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리고 날이 새면 뻐꾸기는 다시 새 이야기를 얻어 오기 위하여 산과 마을과 들판을 건너 하루하루 더 먼 길을 찾아 떠나가곤 하였습니다.

뻐꾸기와 오리나무는 날이 갈수록 우정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오리나무에게 아직도 한가지 슬픈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오리나무는 언제나 이야기를 듣기만 하여 뻐꾸기에게 미안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리나무는 자기도 뻐꾸기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리나무는 아무리 생각해도 뻐꾸기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오리나무가 알고 있는 것은 밤하늘과 별과 비오는 날의 천둥소리, 그리고 언제나 그 모양 그대로 있는 산등성이와 가끔 가다 비가 개고 나면 그 산등성이 위에 걸리는 오색 무지개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구름들에 대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뻐꾸기도 모두 알고 있을 일들이었습니다.

오리나무는 아무리 애를 써도 뻐꾸기를 즐겁게 해줄 이야기를 생각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오리나무에게 또 하나의 슬픔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니 오리나무는 곧 낙엽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오리나무에게서 잠자리를 얻을 수 없게 된 뻐꾸기는 따뜻한 남쪽으로 겨우살이를 떠나 가야 했습니다.

“추운데 오리나무님 혼자 쓸쓸하시겠어요. 뻐꾸.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뻐꾸. 내년엔 따뜻한 봄이 되면 오리나무님을 다시 찾아올게요. 뻐꾸. 그리고 남쪽나라에 가서 오리나무님께 들려줄 이야기도 많이 많이 보고 올게요...”

뻐꾸기는 뻐꾸뻐꾸 노랫소리로 오리나무를 위로하고 남쪽나라로 떠나갔습니다.

뻐꾸기가 떠나가고 나자 오리나무는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뽕뽕 불어오는 겨울 바람이 나뭇잎을 떨구고 헐벗은 오리 나무를 더욱 슬프고 외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해가 질 저녁 무렵부터 하늘에서 꽃송이처럼 아름답고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룻 밤을 새고 나니 세상은 온통 그 눈송이에 덮혀 하얀 은세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송이들은 오리나무 가지에도 소복소복 쌓여 있어 따뜻한 숨웃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오리나무는 그만 춤을 추고 싶을 만큼 기뻐했습니다. 뻘뻘기가 돌아 오면 해 줄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눈 이야기였습니다. 꽃송이처럼 아름다운 눈이 가득 내리는 하늘과 그 눈에 덮힌 하얀 산과 나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한 남쪽으로 가서 지내고 오는 뻘뻘기는 눈을 본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눈 이야기를 해 주면 뻘뻘기는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어 할까.”

뻘뻘기를 즐겁게 해 줄 생각에 오리나무는 이제 겨울이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밤마다 뻘뻘기를 다시 만나 아름다운 눈 이야기를 해 주는 꿈을 꾸면서 어서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뻘뻘기에게 그 눈 이야기를 해 주는 꿈을 꾸고, 녀석이 찾아올 따뜻한 봄을 생각하는 동안은 긴 겨울이 춥지도 쓸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쪽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가지 끝에 새 나뭇잎이 푸르게 우거지기 시작한 이듬해 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뻘뻘, 뻘뻘...”

오리나무는 어느 새 건너편 산등성이에서 뻘뻘뻘뻘, 기다리던 뻘뻘기가 그를 찾아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